제82차 전문가포럼

한중관계의 현재와 미래

사회 : 조한범(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 황재호(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1부 - 발제

먼저 한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미래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양국 관계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낸 분야는 아마 경제 교역 분야일 것이다. 1992년 한중수교 당시 양국의 분업 구조는 경제 중진국이었던 한국의 기술과 자본투자, 그리고 후발 도상국이었던 중국의 노동력과 원자재들이 맞물린 호혜적 관계였다. 2014년에는 한중 FTA까지 맺으면서 한국-홍콩 간 교역까지 포함하면 양국의 교역 규모는 거의 3천억 불에 달했으며, 이는 한미, 한일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이런 호혜적 관계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중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5억여 명의 중산층을 기반으로 내수가 상당히 활발하고, 양국의 기술 격차도 상당히 좁혀지면서 산업, 수출 구조에서 겹치는 분야가 많아지는 등 한국으로서는 위기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갈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항공편 수 매주 1300회, 1천만 명에 달하는 양국간의 적극적인 민간 교류가 있었으며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생기고,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사드, 코로나19 등의 사태는 이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중 간 첫 갈등으로 기억되는 2000년 마늘 파동을 시작으로 동북공정,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중국의 한국 문화 베끼기, 최근 들어서는 한복, 김치 등을 위시한 중국의 문화 왜곡 논란 등이 한국 국민들의 반중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민간 차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이 주변국들을 압박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한국에 상당한 강한 거부감을 야기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1992년 한중 수교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서 출발한 것이다. 냉전 체제가 와해되면서 구소련과 동유럽 지역에서 탄생한 많은 신생 국가들과 수교를 맺는 외교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이었다. 중국과 얼마나 긴밀한 외교수립을 해왔는지는 중국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2017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화'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거의 5년 주기로 관계를 격상시켜 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격상된 명칭에 맞는 내실화, 실질화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어쨌든 1978년 이전에는 이념적인 대립 관계였다면 2012년까지는 경제 무역 중심의 협력 관계가 좀 더 두드러졌고, 2013년 시진핑의 등장 이후에는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관계의 심화를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급상승한 국력에 힘입어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를 펼쳐 오고 있다. 2013년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시아태평양은 중국과 미국이 충분히 국익을 나눌 만하다'면서 '신형 대국관계에 걸맞는 미중 양국 공동의 리더십을 이 지역에 수립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국제사회에는 '신형 국제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거북해할 만한 내용들이었다.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우호적이었던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로 인해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것이 2017년 문재인 출범 이후에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으로는 사드의 여파가 가시지 않으면서 여전히 양국 관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이 현재까지의 한중 관계의 전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되돌아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양국 관계를 지칭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살펴볼 때, 과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국은 보통 외교, 군사적 맥락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핵실험 중이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 군사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던 반면, 중국에서는 '전략적 협력'이라는 표현이 '중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중 관계의 격상, '신형 한중 관계'로 나아가자

중국과 향후 수립해야 할 관계에 대해,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 '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서 착안, 새로운 종류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신형 한중 관계'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또 중국에는 우리의 '뉴노멀'에 해당되는 경제적 용어로 '신창타이(新常態)'라는 말이 있다. '목표를

낮춰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품을 뺀다는 의미인데, 이를 외교적으로도 적용해 본다면 '서로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기대치는 좀 낮추면서 중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서로의 차이점(입장차, 이견)은 미뤄 두자'는 의미로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구동화이(求同化異)', '문제까지도 해결해 나가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분야의 전략적 협력과 협력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전략적 협력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한데 이들을 세분화해서 어떤 분야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양측에서 이미 몇 가지 기제들이 논의가 진행되어 마련되기도 했으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들 중 당장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네 가지 정도를 꼽자면, 첫째로 청와대 차원에서는 위기 예방,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 경제, 국방 쪽에 '2+2 전략 대화'를 기제화해야 한다. 둘째로 양국 국방부 차원의 기존 통 안보 협력을 통한 군사 신뢰 구축도 필요하다. 셋째로 중국 공산당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재작년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왔을 때의 동선들을 보면 재미난 포인트가 있다. 정부를 예방한 것 이외에도 국회를 방문하여 정당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한국을 움직이는 여러 축들 가운데 정치 영역의 중요성을 중국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중국의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당제와 일당제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나 민간의 교류처럼 앞으로는 양국 당 차원의 정치 영역에서의 교류도 좀 더 강화돼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핵 협력은 역시 양국 관계에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후로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 같던 갈등 기조가 바뀌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협상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 정부와는 대북 정책 코드가 맞다.

중국이 얘기하는 양국 유대관계의 최소한의 요건이자 외교 안보 협력의 시작은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 이것이 만약 양국 간에 공고하게 유지된다면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 협정의 동시 추진)' 등 외교안보적으로 공통분모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신뢰를 갖게 된다면 한국도 중국에게 비핵화에 큰 의지를 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화 체제와 비핵화 원칙에서 양국의 입장이 교집합을 확대해 가는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북핵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운전자 역할을 맡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 정책을 한국이 주도하는 데에 중국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상이 양국의 주요 연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다음으로 다른 측면에서의 한중 간 협력도 도모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대외 정책의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동북아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정책적 공감대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화'에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작년 왕이 외교부장 방한 당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외무장관 회의에서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화로 한중 미래 발전위원회를 구성,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30년을 새로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양국 관계의 정의나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볼 수 있겠다.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중요하다

그동안 국내 언론에서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용어에 담긴 우리의 전략이 상대에게 읽히거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오해와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동안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었지만 앞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글로벌 가치 사슬 배제나 **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경제번영 네트워크)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반중(反中) 경제블록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공급망을 의미. 출처 : 연합인포맥스),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 미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출처 : 위키백과) 등을 현재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경제 이니셔티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는 주로 군사적인 측면이 강했던 한미동맹이 이제는 경제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이미 한중 FTA를 하고 있는데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동반자협정 ASEAN+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5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미국, 유럽연합은 RCEP는 명백히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아시아 국가를 편입하여 미국, 유럽 위주의 패권을 빼앗으려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체결로 인해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한중 양국이 사드를 포함해 여러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을 봉합하고 걸으로는 큰 문제없는 듯 지내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

나는 대북 정책, 북핵 문제임을 고려하면, 결국 한중 관계도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외교 안보관계로까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안미경중'이 유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이익을 좇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미국과 결속, 중국과는 연대'한다는 의미로 쓰는데 이건 한국식 해석이고, 중국식으로는 '미국과 결합, 중국과는 연맹'이라는 뜻이 된다. '연聯'이 한국에서는 '연대'지만 중국에서는 '연맹', '동맹'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중국에게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양쪽 입장이 모두 녹아들 수 있는 용어를 써야만 관계에 있어서 안전할 것이다. 저는 대신 '연미합중(聯美合中)'이라는 표현을 쓴다. '미국과 연맹, 중국과는 화합'한다는 의미이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선택

국제 질서는 코로나 19를 전후로, 미국의 외교는 트럼프 전후로 나눌 수 있다. 트럼프 시대에 미중 관계는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투키디데스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된 것으로,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뜻. 오늘날에는 신흥 무역 강국이 기존 구도를 흔들면 기존의 무역 강국과 신흥 무역 강국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는 뜻으로 쓰임. 국제안보 분야의 석학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개념을 통해 미중 갈등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음)'으로 설명되곤 한다. 한편 생각해볼 것은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넘어섰는지, 넘어설 수 있는지. 혹시 미국과의 경쟁에서 시간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장기전으로 판단하여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미중 관계가 신냉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으로 올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세가 신냉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미소 냉전이 이념, 군사적 대립이었다면 미중 관계는 정치, 경제적 대립이다. 경쟁적 측면이 트럼프 이후로 더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경쟁과 협력을 7대 3으로 본다. 여전히 협력의 영역이 많이 남아 있다. 신냉전보다는 오히려 '신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문명간의 충돌이 아니라 국익의 충돌이고 또 상호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부른 해석은 상황을 오판하게 한다. 국제 질서의 변모 과정을 예의주시하되 빨리 어느 한쪽에 줄을 서야 된다는 식의 강박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의 대응도 지켜봐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최악을 피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가장 미중 관계가 격렬한 시기에 한국 외교가 놓여 있다. 외교안보적으로 험난한 이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서는 것이 다음 정부의 외교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발제를 마치면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민간 교류의 확대, 경제적 밀착, 외교 안보적으로 공통점 확인, 정치 교류 등을 통해 큰 발전을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긴 호흡으로 관계를 내다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관계의 거품을 걷어내고 기초를 더 보강하는 '신형 한중 관계' 수립의 계기를 올해, 내년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한중 관계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긴장 관계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 시장이자 기회였던 중국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상태에서 한국은 새로운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도 한중간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서도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정부의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영역에서 한국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외교 분야까지 잘 해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중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 개념 설명)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의 가장 낮은 관계는 '이웃 국가'이고, 최상급 관계가 '동맹'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다. 그보다 상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다음으로는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즉 이웃 국가~동맹 사이에 이런 여러 단계가 있다. 참고로 일본과 우리는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국방 백서에는 일본은 그냥 '이웃 국가'로 되어 있다.(한중 -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일 - '이웃 국가', 한미 - '동맹')

2부 - 질의응답

Q.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라고도 하고, 특히 과거 악명 높았던 중국의 장실 문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서 내부적으로는 인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중국 내부의 국민적 지지는 어떤지?

A.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고 나서 베이징에 있는 청풍 만두집이라는 체인을 시찰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 달 후 베이징 출장 때 그 곳을 찾아가 지점장과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 시진핑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과 신뢰감은 엄청났다. 그 이전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여러 번 군부 개혁을 천명했으나 장성 몇 명 줄이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어렵다는 군사 개혁을 단 몇 년 만에 해치워버렸을 정도로

권위도 추진력도 상당하다.

그리고 이전에 그 쪽 행사장에 가면 항상 원탁 테이블에 산해진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중국에서는 부정부패에 연루될 소지를 다 없애야 해서 사회 고위층들은 상당히 조심하게 되었고 거품이 다 빠졌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화장실 혁명'을 단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시진핑은 부친이 권력에서 밀려나 오랫동안 하방되었던 시절 주거 환경에 어려움이 많았다. 벼룩이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적응하고 나중에 베이징에 돌아와 대학 공부를 한 후 허베이성의 작은 현에서 부서기를 맡았다. 그때 화장실 등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의 개선 없이는 어떤 문화적, 인간적 소양도 제고하기 어렵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역점을 뒀던 것이 화장실 혁명이었다.

지방에서 차근차근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 군대를 거쳐 베이징으로 재진입하기까지의 수십 년의 오랜 생활 동안 경력을 상당히 쌓았고 정치적 내공을 기른 시진핑이야말로 덩샤오핑이 말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 들어맞는 사례일 것이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다렸다 뚫고 나오면서 때가 될 때까지 자기의 포부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다. 시진핑은 부친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기여했던 '홍색귀족' 출신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강한 사명감을 가졌는데 단순히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꿈과 자신을 거의 일체화시키는 면이 있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관계를 보면 쟁저민-리핑, 후진타오-원자바오 때와는 달리 권력지향적인 시진핑에 비해 리커창은 라이벌이 되지 못했고 근 10년이 지난 현재는 리커창이 오히려 시진핑 앞에서 정치 보고를 해야 될 정도로 권력관계가 완전히 불균형적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의 분석 외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 최고로 집중되었던 마오쩌둥 시기 이후로 덩샤오핑, 쟁저민, 후진타오로 오면서 권력이 점차 분산되다가 시진핑 집권 후로 다시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인민들은 꽤 긍정하고 있는 듯하다. 택시를 타서 물어보면 '불만은 여전히 있지만 그 어느 지도자보다 지금이 낫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국가 발전 비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일체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 인민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마 모든 가용자원을 다 동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시진핑 집권 2기를 결정했던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2050년에 중국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2035년에 중간 단계를 만든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2035년까지 직접 무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그때까지 계속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 않을까 싶다. 시진핑이 권력에서 물러났을 경우 현재의 1인 집중 체제가 선택과 집중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후계자가 시진핑 급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 정

치 체제나 권력 내부에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

Q. '연미합중'의 '연맹'과 '화합'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A. 연미합중은 중국식 표현으로 말씀드린 '연'이 '연맹', '동맹'이니까 미국과 연맹한다는 뜻에서는 맞고, '합'은 우리 언론에서는 보통 '연미화중'이라고 많이 쓰는데 '화'는 그냥 일반적인 협력 관계를 말한다. 협력에도 여러 수준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합작이라고 표현하면 일반적인 협력 관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협력 관계이다. 한중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니까 '합'이라는 글자를 쓰면 조금 더 현재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다.

Q. 시진핑 후계 구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A. 보통 임기 말이 되면 후계자가 대강 그림이 나온다. 이전 후진타오 때까지 보았던 정치 계승 방식은 이미 아닌 상황이다.

Q. 만일 한국이 한일 관계 개선과 북일 수교에 적극 나선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A. 한일관계, 북일 관계는 현재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한중이 일본에 대해 입장이 비슷했던 시기가 시진핑-박근혜 시기였다. 역사 문제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대일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사실 중국도 당시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했다. 경제이익 측면에서, 또 동아시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아베 정부 임기 내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입장 변화 얘기가 애매했는데, 한국이 먼저 입장을 바꾸니 중국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담감 없이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제 다시 역사 문제로 한중간에 협력 계기를 마련하기란 쉽지 않고,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한국에 함께 협력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짧은 제스처에 불과했다. 앞으로 큰 이슈로 한중이 일본에 대해 공동 입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Q. 신형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북공정, 문화공정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우리 정부는 큰 대응이 없는 것 같다.

A. 사드가 중국 안보에 큰 위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봉합을 하게 된 것은 북한 문제의 급박함으로 인해 중국도 일단 한국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간에는 그냥 계속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동북 역사 문제나 또 여타 예민 이슈들은 가능한 우리가 먼저 꺼내지 않으면 중국도 꺼내지 않을 거라고 본다. 중국이 먼저 문제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중국이 우리가 또 다시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를 도입할 때 시비를 걸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들이 있지만 미사일 같은 문제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글로벌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바로 등장해서 한국의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올 것 같지는 않다.

Q. 지금 양안 관계의 추이는 어떤 상황인가?

A. 마잉주 정부는 중국에 협력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만 경제는 활력이 좀 있었다. 그런데 차이잉원이 들어오고 나서 중국과의 분명한 거리감을 설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가 대만에게 큰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하에서 대만은 새로운 외교 안보 옵션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대만은 미국의 중요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겠다. 양안으로만 보면 안 되고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대만이 점하는 전략적 가치 활용도를 봐야 한다.

Q. 미중 경제 전쟁이 심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A. 일단 국제질서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현재 국제질서에는 3개의 구상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구상,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한국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질서와 인도 태평양 질서를 혼용하고 있는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는 이제 중국의 국력이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섰고 그래서 미국이 인도양까지 포함해야만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데 중국을 창, 미국을 방패라고 표현한다면 중국의 창은 '일대일로'이고, 미국의 방패는 '인도 태평양'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창이 방패를 뚫어낸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의 '대서양 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미국의 부상인데, '미국의 분노의 부상'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국이 질서를 수립하고, 서유럽과 일본을 부흥시키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지원하고, 또 많은 개도국들을 지원했음에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비판하지 잘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다. 이에 미국은 그동안의 피로감이 축적된 데다 불만이 커지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제임스 화이트라는 목사가 쓴 책 '년스의 부상(The Rise of the Nones)'에서 년스(Nones)란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미국의 리더십이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안보 구조를 기대하는 국가 또는 세력들이 생길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년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국가다. 동맹이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신의를 많이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물질로만 평가하는 것에 사실 큰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우리의 외교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Q.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이슈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하는지 궁금하다.

A. 중국 얘기를 하려면 미국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이 이해를 돕기 쉬울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는 역량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또 자기 역량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그것을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다자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하나의 큰 그림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져나오기가 쉬워진 것 같다. 이미 셰일 개발이 끝나서 석유의 중요성은 미국 전략에서 낮아졌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1조 이상 달러를 투자했지만 크게 미국의 전략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50%가 미국 국익 우선주의에, 외교적으로도 기존 외향적이었던 미국의 행보와는 반대로 내향형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국내정치를 의식해서라도 빨리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앞으로도 힘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듯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미국의 리더십이 끝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향후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미국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미국에게는 1보 후퇴 2보 전진일 수 있다. 그리고 바이든 4년은 미국 외교의 성공적인 과도기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성공은 중국에게는 불행이다. 또 미국의 실패는 중국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탈레반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카불을 접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중국 쪽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떤가? 중국의 시각에서, 탈레반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 미국은 침입자이고 아프간 정부는 미국의 부식된 정권이다. 그리고 탈레반 세력이 20년 동안 역량을 자유롭게 준비하고 정확한 전략 전술로 변경과 해안 지역에서부터 점점 거점 도시들을 장악하고 카불로 진입하는 과정이 옛날 마오쩌둥과 국민당의 내전 상황과 상당히 겹친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한 전투 없이 접수했다는 것은 이들이 환영받는 세력이라서 라기보다는 정부와 정부군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것이다. 적을 앞에 두고 대통령도 도망갈 정도이니, 더 이상의 지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중국의 향후 정책은 이미 왕이 외교부장이 2017년에 건설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아프간 외에도 중국-파키스탄-아프간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언론들

의 논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앞으로 건설적인 개입자, 중계자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아프간은 중국에게 여러모로 요충지이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한 가운데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유용하고 또 중국의 일대일로가 유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필수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신장 위구르 쪽 테러 세력이 아프간 국경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프간의 협력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있다.

이런 실질적인 이익 외에 심리적, 전략적 이익도 있다. 중국이 이제는 글로벌 대국을 자임하는 만큼 아프간의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이 이전에는 대테러에 대해서는 협력적이어서 아프간 문제에도 상호협력하는 편이었는데, 미국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 이 지역에서도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미국 CIA의 변화다. 유라시아 미션센터, 유럽 미션센터 등 대륙이나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 센터가 신설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기존의 대테러 정책에서 이제는 대중국 정책으로 미국의 중심추가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다. 앞으로 미중 간의 대국 경쟁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은 예전의 소련이나 미국과는 달리 자신감이 있는 것이,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탈레반 정부와 큰 갈등 요인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앞으로 중국이 탈레반 신정권을 지지하면서 일대일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등 신장 지역 테러리즘의 준동을 막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지지를 끌어내려 할 수도 있다.

Q. 중국과는 문화적으로 친밀감이 크면서도 한편 반중 정서도 크다. 한국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중국관은 어떤 것일까?

A. 중국 문화를, 또 중국 사람의 인식체계를 알아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용어에서도 양쪽의 인식이나 입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인문,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많아지는 것이 일단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의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해도를 넓혀야 한다.